



우리말의
이모저모

한국인이 알아야 할 우리말 상식 열여섯 마당

우리말의 이모저모

기획·총괄 | 정희원 (국립국어원)
집필 | 박동근 (건국대학교)
삽화 | 김향희
디자인 | **design Vita**
편집·제작 | 김철호 (글노리)

발행일 | 2010. 7. 10.
발행인 | 권재일
발행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c) 2010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 (우)157-857

국립국어원 | 2010-04-01

발간등록번호 | 11-1371028-000191-01



이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3,000여 개에서 많게는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중 한국어는 약 7,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자 수로 보면 1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위 언어입니다. 사용자 수나 국제 소통어로서의 쓰임 등을 볼 때 한국어의 위상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와 비슷합니다.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은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열기는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 중에도 한국어가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 어떤 특징을 지닌 언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 해도 마땅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한 이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홍보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은 너무 간략하여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는 누가 사용하는지, 한국어의 소리 체계와 문법·어휘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 주요한 항목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표기 수단인 한글에 대해서도 창제의 배경과 원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어의 역사와 지역어 현황, 높임법의 발달 등 한국어의 중요 특징들을 되도록 외국어와 비교 대조하여 서술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학계에서 검증된 과학적·체계적인 내용을 담되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미 출간된 책들 중에는 미확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자 마련한 이 책이 되도록 널리 읽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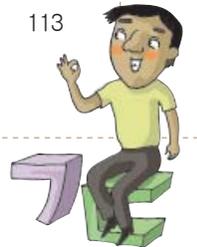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차례

1	한국 사람들의 말, 한국어	9
2	소리 들어다보기	15
3	문법 둘러보기	21
4	앞서는 말, 뒤따르는 말	27
5	낱말의 세 종류	33
6	섬세한 느낌을 담은 낱말들	41
7	한국어를 적는 글, 한글	47
8	말글살이의 어제와 오늘	53
9	한국어가 걸어온 길	59
10	지역에 따라 다른 말	65
11	돌로 나뉜 한국어	73
12	예절 바른 한국어	81
13	다른 사람을 부를 때	89
14	소통을 위한 약속들	95
15	세계 속의 한국어	101
16	한국어의 미래	107

| 부록 | 한글 · 한국어 관련 사이트

113



1

한국 사람들의 말, 한국어

대한민국의 공용어, 한국어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한반도와 제주도를 포함하여 그 부속 섬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다.

19세기 이후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과 일본, 러시아(연해주와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도 한국 밖의 지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국가 단위의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



다(단, 북한을 고려할 경우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곳은 두 나라가 된다).

한국은 최근에 국제 결혼이나 이주 노동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이 늘면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단일 언어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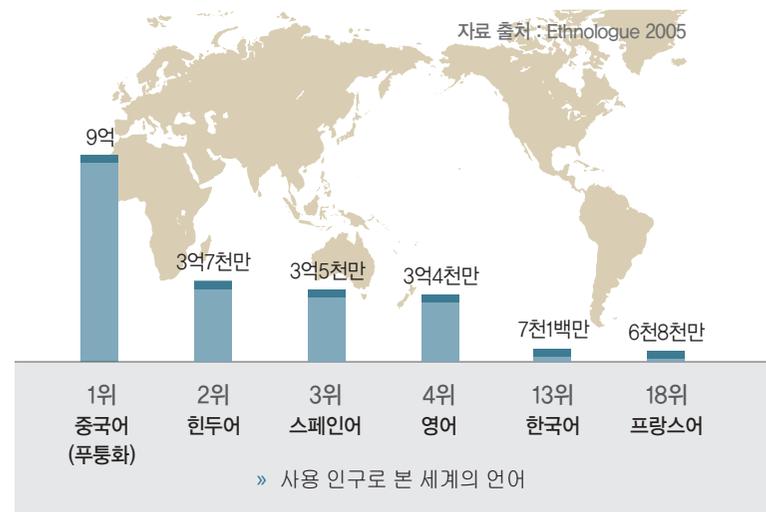
누가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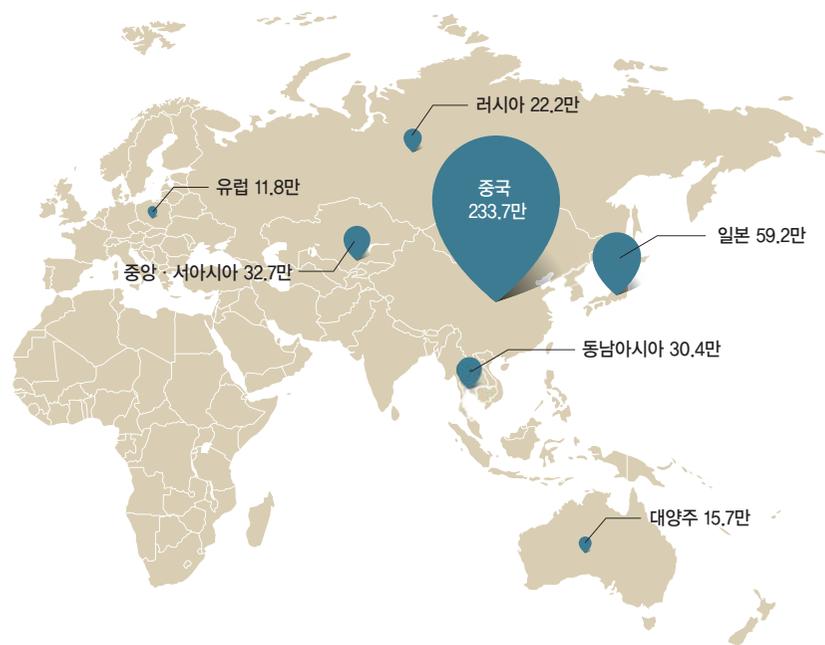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를 제1 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한국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살면서 저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그 지역의 언어

를 제1 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셋째 부류에 속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언어와 방언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게는 3,000여 개에서 많게





» 한반도 외 지역의 한국어 사용 인구

는 7,000여 개로 본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남한 인구는 4,860만 7천 명, 북한 인구는 2,329만 8천 명으로, 남북한 총인구는 7,190만 5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 미국, 일본, 구소련 지역, 캐나다, 대양주, 중남미 및 유럽 등지에 흩어져 사는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의 수를 합하면 약 7,700만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어는 사용 인구로 볼 때 13위 안에 드는 언어로,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사용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2009년 인터넷 사용 언어 인구 집계에 따르면 한국어는 10위에 해당한다. 2007년에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공개어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한국어로도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한국어는 국제어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와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외 이민 등으로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

를 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은 대부분 한반도 안에 모여 살고 있으며, 한반도 안에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어는 사용 인구로 볼 때 프랑스어와 비슷하지만, 프랑스어가 캐나다를 비롯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여러 나라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데 비해 한국어를 국가 단위에서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과 북한)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한 언어 공동체가 한 국가를 이룬, 많지 않은 예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는 한국 사람을 다른 민족이나 국민과 구별해 주는 중요한 징표가 되며, 한국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애정을 갖고 보존·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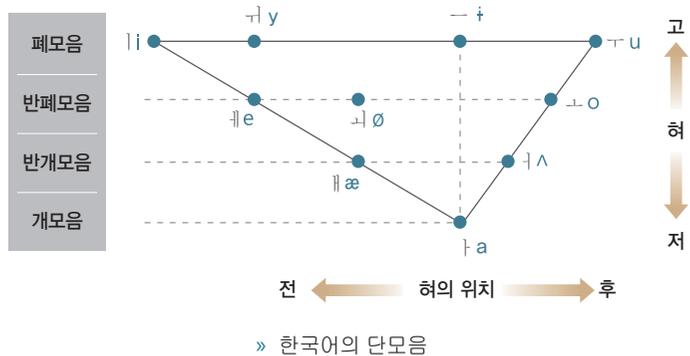
소리 들여다보기

한국어는 어떤 느낌?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어의 소리가 부드러운 느낌인 데 반해 독일어는 다소 딱딱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어떻게 들릴까? 언어권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어의 소리가 다소 딱딱하고 무뚝뚝한 느낌을 준다는 이들도 있고, 생동감 있게 들린다는 이들도 있다.

한국어의 모음

한국어에는 모두 열 개의 단모음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ㅔ’[e]와 ‘ㅙ’[æ]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 ‘위’와 ‘외’는 프랑스어의 [y]나 독일어의 [ø]와 같이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wi]나 [we]처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자음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불[pul], 풀[pʰul], 뿔[pʰul]’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이 ‘불, 풀, 뿔’이라고 하면, 영어 화자들은 대개 ‘풀, 풀, 풀’이라고 따라 한다. 한국 사람은 ‘ㅍ, ㅍ, ㅍ’의 세 소리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하지만, 영어 화자들이 이 소리들을 구분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ㄷ, ㅌ ㄷ’이나 ‘ㅈ, ㅊ, ㅈ’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p]:[b], [t]:[d], [f]:[v]와 같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말을 할 때 ‘바보[pabo]’에서 첫 번째 ‘ㅂ’은 무성음 [p]로, 두 번째 ‘ㅂ’은 유성음 [b]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또 한국 사람은 ‘보리[pori]’의 중간 소리 ‘ㄹ’과 ‘달[tal]’의 마지막 소리 ‘ㄹ’을 [r]과 [l]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법

한국어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각각 하나씩의 자음이 올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초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한 개를 넘을 수 없다. 즉, ‘나’, ‘소’, ‘자’처럼 초성 자리에 자음 하나가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겹쳐



서 올 수는 없다. 영어에서는 ‘stop’이나 ‘spring’처럼 초성 자리에 자음이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나란히 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초성 자리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영어 단어들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자음 사이에 모음 ‘ㅡ’를 넣어서 ‘스톱’, ‘스프링’처럼 쓰고, 읽을 때에도 ‘ㅡ’를 넣어서 소리 낸다.

중성 자리에 오는 자음의 수도 하나를 넘을 수 없다. ‘흙’이나 ‘값’ 같은 말은 표기상 중성 자리에 자음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할 때에는 [흙], [값]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영어의 ‘milk’와 같이 중성 자리에 두 자음이 오는 말을 한국어로 옮길 때에는 ‘밀크’처럼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고쳐 쓰고, 말할 때에도 마지막에 모음 ‘ㅡ’를 넣어서 소리 낸다.

한국어의 운율

언어 중에는 낱말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어의 옛말에서도 낱말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방언을 제외하고 높낮이에 따른 의미 구별은 사라졌다.

한편,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은 현대 표준국어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눈’은 짧게 발음할 때는 보는 눈(eye)을 뜻하고, 길게 발음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snow)을 뜻한다. ‘말’은 짧게 발음할 때는 동물 말(horse)을, 길게 발음할 때는 사람이 하는 말(language)을 뜻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 올수록 모음의 길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소리

한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에는 ‘두음법칙’과 ‘모음조화’가 있다. 낱말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이 본래의 소릿값을 잃고 다른 소리로 발음되거나 아예 소릿값 자체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두음

로인(老人) → 노인 (=두음법칙)
 리발(理髮) → 이발 (=두음법칙)
 녀자(女子) → 여자 (=두음법칙)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특별히 낱말 첫머리에 ‘ㄹ’이나 ‘ㄴ’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ㄹ’로 시작하는

고유어가 거의 없다. 한자어 중에서 첫소리가 ‘ㄹ’이나 (일부 조건에서) ‘ㄴ’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이를 ‘ㄴ’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거나 아예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라디오(radio)나 레이저(laser), 뉴스(news)와 같이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경우에는 어두에서도 ‘ㄹ’이나 ‘ㄴ’ 소리를 그대로 발음한다.

어울리는 모음, 어울리지 못하는 모음

다음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한 어절 안에서 ‘ㅏ, ㅑ’는 ‘ㅏ, ㅑ’끼리, ‘ㅓ, ㅕ’는 ‘ㅓ, ㅕ’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있다. 이를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동사의 어간과 어미 사이나 의성어·의태어에서 주로 나타난다.

ㅏ - ㅏ	ㅑ - ㅑ	ㅓ - ㅓ	ㅕ - ㅕ
깎 - 아	꺾 - 어	노릇 - 노릇	누릇 - 누릇
파랗다	퍼렇다	보글 - 보글	부글 - 부글
반짝 - 반짝	번쩍 - 번쩍	동실 - 동실	동실 - 동실

3 문법 둘러보기

어미가 하는 일

한국어에서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구별할까?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제는 어떻게 나타낼까?

영어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을 만들거나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꿀 때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is is a book. 평서문
Is this a book? 의문문

위에서 본 것처럼 영어에서는 주어인 ‘this’와 서술어인 ‘is’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평서문이 의문문이 된다. 반면에 한국어

는 어순과 상관없이 어간에 어떤 어미가 달라붙느냐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 철수는 학교에 간다. 평서문
- 철수는 학교에 갈까? 의문문
- 철수야, 학교에 가자. 청유문
- 철수야, 학교에 가라. 명령문

방금 보았듯이 어간 ‘가-’에 어미 ‘-는다’가 붙으면 평서문이 되고, ‘-을까’가 붙으면 의문문이 된다. 또 ‘-자’가 결합하면 청유문이 되고, ‘-라’가 결합하면 명령문이 된다.

조사가 하는 일

한편, 체언(명사·대명사·수사) 뒤에는 조사를 붙여서 그 낱말의 자격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의미를 더해 준다.

- 철수-가 책-을 읽는다.
(주어) (목적어)
- 영희-만 부산-까지 갔다.
(한정) (도착점)

위에서 조사 ‘가’는 ‘철수’가 이 문장에서 주어임을 나타내고, 조사 ‘을’은 ‘책’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영희’에 한정 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만’을 붙여서 ‘영희’ 외에는 부산에 도착한 사람이 없다는 뜻을 더하고, ‘부산’에 ‘까지’를 붙여서 도착지가 부산임을 나타낸다.

어미와 조사의 독립성

한국어의 어미와 조사는 앞에 오는 어간이나 체언에서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때 각 어미와 조사는 한 가지 형태가 한 가지 기능을 한다.

he/she	그
they	그-들
them	그-들-을
their	그-들-의

영어의 ‘they’는 ‘he/she’의 복수형이다. ‘them’은 ‘he/she’의 복수형이자 목적격을 나타낸다. ‘their’는 ‘he/she’의 복수형이자 소유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영어의 ‘them’이나 ‘their’는 ‘he/she’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이들을 분리해서 복수를 표시하는 부분과 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다. 반면에 한국어의 ‘그들’과 ‘그들의’에서는 체언인 ‘그’와 복수의 뜻을 더하는 ‘들’, 목적격을 표시하는 ‘을’과 관형격을 표시하는 ‘의’를 각각 분리해 낼 수 있다.

어미의 힘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 정보를 표시한다.

잡 - 다	평서	어간 ‘잡-’에 ‘-으시-’를 결합하면 [높임]의 기능을, ‘-았/었-’을 결합하면 [과거]의 기능을 실현한다. 또 ‘-겠-’은 [추측]을, ‘-더-’는 [회상]의 기능을 실현한다.
잡 - 으시 - 다	높임	
잡 - 았 - 다	과거	
잡 - 겠 - 다	추측	
잡 - 더 - 라	회상	

또, 다음에서 보듯이 한 어간에 여러 어미가 한꺼번에 결합할 수도 있다.

잡 - 으시 - 었 - 겠 - 더 - 라					
어간	높임	과거	추측	회상	평서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

영어에서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and’나 ‘but’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연결 어미를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잇는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 영희는 집에 간다.

→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집에 간다.

→ 철수는 학교에 가-지만 영희는 집에 간다.

한국어에서 문장을 이을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는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와 ‘영희는 집에 간다’라는 두 문장을 ‘-고’로 연결하면 앞뒤 문장이 의미상 대등함을 나타내고, ‘-지만’으로 연결하면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그 밖에

서양 언어에서 체언(명사 등)에 표시되는 ‘인칭’이나 ‘성’, ‘수’ 등은 한국어에서 특별한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 인칭이나 성, 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4

앞서는 말, 뒤따르는 말

한국어의 기본 어순

전 세계의 언어들은 대부분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주어 (Subject), 목적어(Object), 서술어(Verb)라는 세 가지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언어에 따라 이 세 가지 성분을 배열하는 순서가 다르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S)-목적어(O)-서술어(V)’ 순으로 말을 하는 SOV 언어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맨 뒤에 오는데, 이러한 순서는 서술어가 주어 다음에 오는 영어나 중국어와 크게 다른 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국어
(S) (O) (V)	
I love you	영어
(S) (V) (O)	
我 愛 你	중국어
(S) (V) (O)	

꾸미는 말은 앞에

한국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미를 받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이것은 읽을 만한 책이다.
This is a book worth reading.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꾸미는 말 ‘so much’가 꾸미를 받는 말 ‘love’ 뒤에 오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꾸미는 말 ‘매우’가 꾸미를 받는 말 ‘사랑하다’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읽을 만한’이 꾸미를 받는 말 ‘책’ 앞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worth reading’이 꾸미를 받는 말 ‘book’ 뒤에 온다.



조사는 뒤에

한국어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명사 뒤에 오지만,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인다.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우리는 방안-에 있다.
We are in the room

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영어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in'이 명사 앞에 오지만 한국어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명사 '학교', '방안'의 뒤에 온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조사는 영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라고 할 수 있다.

어순이 바뀌어도 된다

영어에서는 낱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면 의미가 전혀 다른 문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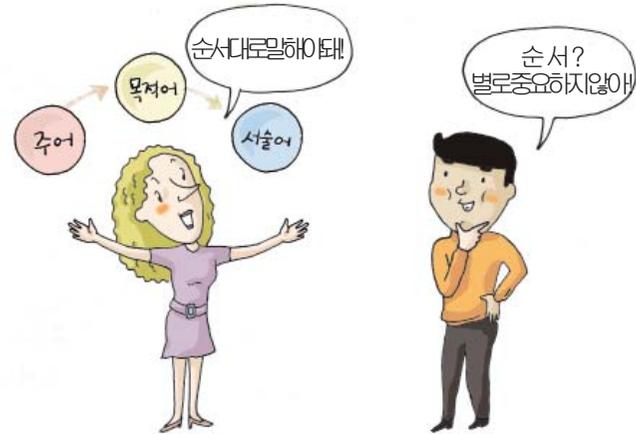
John loves Mary.
Mary loves John.

반면에 한국어는 문장 안에서 성분들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가 기본적인 어순이지만, 말을 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영화-에게 그림-을 보여 주었다.

영화-에게 내-가 그림-을 보여 주었다.
영화-에게 그림-을 내-가 보여 주었다.

위의 문장에서 '내가'와 '영화에게'와 '그림을'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세 문장의 기본 의미는 같다. 한국어에서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가 그 낱말의 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내-가'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주격을 표시하는 '가'로 인해 항상 주어로 해석된다.



주제어를 앞세운다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해서 일정한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어



» 한국어의 어휘

한국어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초 어휘들은 대부분 고유어이다. 또 한국어의 중요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전부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

고유어들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의미의 폭이 넓다. 예를 들어 고유어 동사 ‘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기본 의미 외에 ‘읽다, 살피다, 만나다, 헤아리다, 진찰하다’ 등 스무 가지가 넘는 뜻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어휘들을 말한다. 오래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낱말들이 많은데, 한글 탄생 이전 시대까지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어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서구 외래어가 주로 말을 통해 유입되었다면 한자어는 주로 글의 형태로 들어왔다.

한자어를 적는 수단인 한자는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지만, 한자어의 발음은 토착화된 한국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漢字’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hànzi]가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한자음인 [한자]라고 발음한다.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

한자어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도 적지 않다.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즈음하여 한국에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흘러 들어왔다.

일본식 한자어 중에는 근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많다. ‘야구(野球)’ ‘사진(寫眞)’ ‘기차(汽車)’와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낱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언어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한국어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해방 후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숙아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일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생겨난 한자어

한자어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생겨난 것도 있다. ‘감기(感氣)’ ‘백일장(白日場)’ ‘편지(便紙)’ 등은 예전부터 써오던 것들이고, ‘노사(勞使)’ ‘면도(面刀)’ ‘자가용(自家用)’ 등은 현대에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본래 한자어가 아닌데 고유어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표기하여 사람들이 한자어로 오해하고 있는 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생각’ ‘구경’ ‘서랍’ 등은 고유어인데,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붙여 ‘生覺’ ‘求景’ ‘舌奩’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전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이른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실린 한자어 가운데에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영어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차용 빈도가 높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주로 토착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고유어가 중심이 되며, 한자어 사용 비율은 국어사전의 통계만큼 높지는 않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한자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유어 ‘오늘’과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 ‘금일’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연설을 할 때나 문어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외래어

한자어 외에 다른 언어권에서 들어온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은 영어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버스’ ‘택시’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한국어 안에는 여러 언어권에서 들어온 외래어들이 섞여 있다.

- 독일어 : 세미나, 이데올로기, 노이로제 등
- 라틴어 : 스타디움, 테마, 알리바이 등
- 러시아어 : 트로이카, 페치카, 보드카 등
- 이탈리아어 : 첼로, 오페라, 탬포 등
- 프랑스어 : 망토, 콩트, 모델 등

한국어 낱말 중에는 한국어에 섞여든 지 오래되었거나 한국어에 맞게 변화하여 일반인들이 외래어라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고무’ ‘붓’ ‘구두’는 각각 네덜란드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온 말이지만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일본식 한자어와 더불어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들도 적지 않은데, 한때 일상 언어에서도 많이 쓰였던 이런 낱말들 중에는 일본어에 대한 저항감과 지속적인 국어순화 노력으로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것들이 많다.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의 공존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를 셀 때 고유어로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일(一), 이(二), 삼(三)’이라고 한다. ‘동아리’



와 ‘서클(circle)’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고, ‘승강기(昇降機)’와 ‘엘리베이터(elevator)’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같이 사용되는 예이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는 한자어와 서구 외래어를 격식 있고 유식한 말로 대접하고 고유어는 상대적으로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은 지나친 외래어 사용이 한국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듣기 쉬운 고유어로 바꾸어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6

섬세한 느낌을 담은 낱말들

의성어 · 의태어의 발달

한국어는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각어가 발달했다. 이러한 낱말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라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행동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 의성어와 의태어 수는 5,000여 개에 이른다. 의성어는 대부분의 언어에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매우 많고, 특히 의태어의 발달은 한국어가 유별나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모습은 나라마다 달라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어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듣고 그것이 무엇을 흉

내년 말인지 알아맞히기는 어렵다.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 キラキラ 光る 夜空の星よ。
(kirakira hikaru, yozorano hoshiyo)



이 노래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애창되는 곡이다. 영어 가사에서 'twinkle, twinkle'은 별이 빛나는 모양을 흉내낸 것인데, 한국어로는 '반짝반짝'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キラキラ(kirakira)'라고 한다.

소리의 차이는 곧 느낌의 차이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지닌 말들을 만들어 낸다. 이때 양성모음인 'ㅏ, ㅑ'와 음성모음인 'ㅓ, ㅕ'가 짝을 이루어 대응한다. 양성모음은 밝고, 가볍고, 맑고, 작은 느낌을 주며, 음성모음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준다.

반짝반짝 : 번쩍번쩍

풍당풍당 : 풍덩풍덩

양성모음으로 된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빛나는 모양을, 음성모음으로 된 '번쩍번쩍'은 큰 빛이 빛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양성모음으로만 된 '풍당'은 작은 물건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음성모음으로만 된 '풍덩'은 큰 물건이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자음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를 교체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의태어는 그에 대응하는 예사소리 표현보다 강하거나 거센 느낌을 준다.

감감 : 감감 : 감감

벌떡 : 벌떡 : 펼떡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짝’은 빛이 한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그 반복형인 ‘반짝반짝’은 빛이 여러 곳에서 또는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의성어 · 의태어에서 생겨난 말들

한국어에는 의성어·의태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들이다. ‘보슬비’는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을 흉내낸 ‘보슬보슬’에서 온 말이고, ‘꿀돼지’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꿀꿀’에서 온 말이다. 한국어의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가운데에는 특히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온 말들이 많다.

동물	의성어 (울음소리)	이름
	개굴개굴	개구리
	부엉부엉	부엉이
	귀뚫귀뚫	귀뚜라미

느낌의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감각어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어의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색상의 구별이라는 면에서 한국어에는 ‘희다, 검다, 빨갳다, 노랗다, 파랗다’의 다섯 가지 색을 구분하는 어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어는 감각어의 자음과 모음을 교체하거나 여러 접미사를 결합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단어의 형태를 바꾸어 미세한 감각의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검다’ 한 단어만 보더라도 관련된 파생어가 50개가 넘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나 선명한 정도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까지 구별한다.

- 검다[시각] : 껌다, 가말다, 거말다, 까말다, 꺼말다, 새까말다, 시꺼말다, 새키말다, 시커말다, 거무데데하다, 거무멍멍하다, 거무속속하다, 거무죽죽하다, 가무잡잡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칙칙하다, 거무튀튀하다, ……
- 달다[미각] :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콤하다, 달콤새콤하다, 달착지근하다, 달콤쌉쌀하다, ……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감각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싱겁다’는 말이나 행동이 엉뚱함을, ‘짜다’는 인색함을, ‘가볍다’는 행동이 진중하지 못함을, ‘거칠다’는 성격이 사나움을 의미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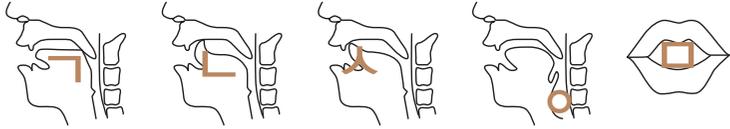
한국어를 적는 글, 한글

한글을 만든 원리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옛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위해 중국에서 생겨난 글자인 한자를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와 구조가 달라서,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어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문자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안타깝게 여겨, 1443년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소리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 이후 3년간 세종대왕은 문자를 실험하고, 1446년 한글에 대한 해설을 붙인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한글을 만든 기본 원리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이다. 다음



» 한국어의 자음과 발성 기관

의 기본 글자는 ‘ㄱ’ ‘ㄴ’ ‘ㄷ’ ‘ㄹ’ ‘ㅇ’의 다섯인데, 위 그림과 같이 각 자음을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상태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모음 또한 상형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모음의 기본자인 ‘ㅏ’ ‘ㅑ’ ‘ㅓ’ ‘ㅕ’는 각각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한글의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날글자들을 합쳐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 ‘ㅋ’은 ‘ㄱ’에 획을 더한 것이고 ‘ㄷ’은 ‘ㄴ’에, ‘ㅌ’은 ‘ㄷ’에 각각 획을 더한 것이다.

ㄱ	→	ㅋ		
ㄴ	→	ㄷ	→	ㅌ
ㄹ	→	ㅂ	→	ㅍ
ㅅ	→	ㅈ	→	ㅊ
ㅇ	→	ㅎ	→	ㅇ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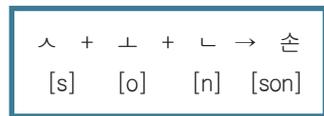
흔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한다. 세종대왕은 사람의 음성 기관을 세밀히 관찰하고 발음 원리와 한국어 말소리의 특성을 연구하여 한국어를 적는 데 이상적인 문자를 만들어냈다. 앞서 보았듯이 한글의 글자 모양은 사람의 발음 기관과 닮았는데, 조형적으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세계의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창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한글은 글자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정연하고 체계적이다. 로마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소리를 적는 ‘k’와 ‘g’, ‘t’와 ‘d’ 등이 형태 면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상형으로 만든 다섯 가지 기본 자음과 세 가지 기본 모음만을 가지고 나머지 글자들을 일관되게 가획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글은 ‘ㄱ’과 ‘ㅋ’, ‘ㄷ’과 ‘ㅌ’처럼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들의 글자 모양이 형태적으로 관련성을 지닌다.



“훈민정음”에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배우기가 아주 쉽다. 특히 한글을 만든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익힐 수 있다.

모아쓰기, 가로쓰기, 세로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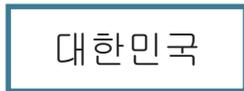
» 한글의 모아쓰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여 적는 소리글자이면서도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표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독서 능률을 높여 뜻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는데, 세로쓰기도 가능하여 필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글의 가로쓰기



» 한글의 세로쓰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자

한글은 독특한 모아쓰기 방식 때문에 기계화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로마자에 맞게 고안된 타자기나 컴퓨터에서 모아쓰기 방식의 한글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더불어 한글이 재평가받고 있다. 한글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글은 오히려 정보 처리 면에서 빠르고 정확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자라 할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8개밖에 안 되는 기본 글자를 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10~12개에 불과한 휴대전화

» 휴대전화의 한글 문자판



의 숫자판에 한글 낱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글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수 있다.

8

말글살이의 어제와 오늘

한자 빌려 쓰기

한반도에 한자가 들어온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삼국이 성립된 이후인 6~7세기 무렵에는 한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말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자는 그 수가 매우 많아 배우기 어렵고, 중국어와는 다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문의 문법을 이해하여 한자로 문장을 짓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차자 표기 방식에는 향찰, 이두, 구결이 있는데, 대개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고 차자 표기 방식에 따른 토를 붙여 넣는 방식이었다. 이 두는 한글이 창제된 뒤인 19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

한글의 탄생

한자를 빌려 적는 방식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완전한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즉위 25년인 1443년에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다. 이로써 한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글자를 배우고 익혀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농사를 짓는 법이나 예법에 관한 책이 한글로 씌어졌고, 한글로 된 시나 소설 같은 창작 문학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양반 귀족들은 한자를 중히 여겨 새로운 문자 창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조선시



대에 한글을 흔히 ‘언문’이라고 불렀는데, 여성들이 많이 썼다고 하여 ‘암글’이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했다. 그 뒤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각성이 생겨나면서 나라의 문자라는 뜻으로 ‘국문(國文)’이라고 부르다가, 뒤에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

한글 탄생 이후의 문자 생활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한자는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자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주요 공문서는 물론 개인적인 기록들도 대부분 한자로 씌어졌다. 20세기 이전 조선의 교육 기관인 서당이나 서원은 한문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도 한문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한글 창제 이후 20세기 전까지 한국의 문자 생활은 ‘한자’, ‘이두’, ‘한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글이 공적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민족적 자각이 일면서부터였다. 1886년 4월에 최초의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1894년 11월 21일에 조선의 제26대 임금인 고종이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적는다는 칙령을 내리면서 비로소 한글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글만 쓸 것인가, 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이후 한국에서는 문자 사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글만을 쓰자는 사람들과,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문자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 서적들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썼고, 대부분의 일간지들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 반면

에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글을 전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자 섞어 쓰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자는 한글에 비해 배우기 어렵고 특히 컴퓨터 같은 전자 기기에서 사용하기 불편하여,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경우는 점점

줄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문서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 표지판에도 한자를 함께 쓰고 있다.

檀園 金弘道의 在世年代에 관해
유섭 교수가 「壺山外史」 『金弘道
(英祖 庚辰生 1760年)과 재
기년자료와 作品貫錄기타 문헌들
을 10년내지 15년올려잡아야 할
(註②) 이에 대하여 金瑢俊은 호
적으로 신빙하는 입장을 견지하
(註③) 이상 두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서도 이를 입증한 만한 새 자

1. 序 言

» 서적의 국한문 혼용



흔해진 로마자

최근에는 영문자를 비롯한 로마자를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도심의 거리에서는 로마자로 표기된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 표지판이나 주요 관광지의 안내판은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고 있다. TV, UN, PD, MC 같은 약자는 한글보다 로마자로 적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거리의 로마자 간판들